

凡父 金鼎高의 陽明學 이해에 대한 試論

정다운*

【주제분류】 동양사상, 한국사상

【주요어】 범부, 김정설, 양명학, 네오휴머니즘, 조화

【요약문】

이 글은 한국근현대기를 살다간 한 사상가 범부 김정설(1897-1966)(이하 범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정에서 특히 그의 학문적 방법론 속에서 양명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범부의 사상 전반을 개괄 한 뒤 그 속에서 양명학이 가지는 위치, 범부의 학문적 방법론 속의 양명학의 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양명학을 대표하는 양명학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양명학에 대한 그들의 같고 다름을 간략하게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범부 사상이 가지는 학문적 특징은 첫째, 전통적 종교론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사상 구축, 둘째, 분별적인 서양학문에 대항하는 氣 일원론을 주장, 셋째, 무분별한 외세의 유입에 의한 전통적 문화에 대한 왜곡에 대한 반성을 들 수 있다.

범부는 자신의 저작에서 그 어디에서도 ‘양명’, ‘양명학’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의 일원론적인 방법론과 중국에 추구하는 공존, 공생의

* 영남대학교

* 이 논문은 줄고 『凡父 金鼎高의 風流思想에 대한 研究 - 몇 · 和 · 妙를 중심으로』(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다시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념은 양명학, 혹은 육왕학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양명의良知와 범부의至情은 그 이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양명의 양지는 본래부터 나에게 있는 것,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본래적으로 있는 것으로 ‘인간과 만물을 존재, 생성케 하는 원리’로 범부의 지정과 일맥상통한 점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양명학자 최명길, 박은식, 정인보를 범부와 비교함으로써 범부가 가지고 있는 양명학에 대한 이해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범부에 대한 이해는 범부를 조화의 원리, 즉 네오희머니즘을 사상계와 정신계에 제기한 인물로 평가하게 하였으며 이와 함께 ‘원효(화랑) → 최제우(동학) → 김범부’로 이어지는 생명학적 측면의 영남학 계보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범부의 이러한 사상은 단지 영남학적 계보에서만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면면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범부 연구에 대한 장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I. 범부 김정설

이 글은 한국근현대기를 살다간 한 사상가 凡父 金鼎高(1897-1966)(이하 범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정에서 특히 그의 학문적 방법론 속에서 양명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기늬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양명학의 원류, 혹은 한국 양명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보다는 범부의 사상을 개괄적으로 그려보고 그 속에서 범부가 이해하고 있는 양명학은 어떠한 것이며, 범부의 양명학은 그의 학문적 방법론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어떠한 논리의 체계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클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는 양명학에 대한 문외한인 필자의 소치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잘 알려진 바 없는 범부의 사상을 소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범부는 흔히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종합으로 꿰뚫을 만큼 심오한 사상세계를 갖추고 있었던 천재적인 사상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범부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의 약력을 비롯하여 그의 사상 전반에 이르기까지 확증되지 않은 채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를 단지 奇人, 혹은 異人으로만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겨두고 있었다.

한국의 근현대기를 살다간 지성인이자 사상가인 그에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의 사상이 가지는 올바른 자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 전부터 있어 왔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의 대강만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부는 189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白山商會(育英事業會) 장학생으로 渡日, 일본 각지 유명대학에서 선진¹⁾ 학술과 외국어를 수학하다 귀국 후에는 山寺를 歴訪하면서 불교철학 및 동방사상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東方思想研究所 등을 세워 동양철학, 한의학 등을 강의하였다.²⁾ 이 외에도 그는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 東萊에서 당선, 汶坡財團³⁾에 의해 1955년 경주에 설립된 鷄林學塾의 학장, 1961년 5·16군사정변 후에는 ‘재건국민운동 중앙위원회’⁴⁾

-
- 1) 여기서 말하는 ‘선진’의 의미는 ‘조선보다 서구에 일찍 개방됨’이란 의미이다.
 - 2) 범부는 1958년-1961년까지 4년에 걸쳐 동방사상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치철학강좌’를 강의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범부의 강의들은 10건 남짓이나 범부의 이력이나 행적으로 볼 때 이 외에도 더 많은 강의를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범부의 강의 목록은 崔在穆, 『책 머리에 - 『범부 김정설연구』 간행에 부쳐 -, 『범부 김정설연구』, 최재목·정다운 외, 경산: 대구 프린팅, 2009, p.viii. [표 1] 참조.
 - 3) 汶坡財團은 최씨일가의 사재를 기본 자산으로 한 재단으로 檀紀四二八六年(1953년) 八月에 문교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2년 뒤인 檀紀四二八八年(1955년) 三月 十五日 계림학숙의 정식인가가 나면서 문과재단은 계림학숙의 모태가 된다.(최재목·정다운, 『『鷄林學塾』과 凡父 金鼎高(1) - ‘設立期’를 중심으로 -, 『동북아 문화연구』 제16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8. 9.)
 - 4) 범부는 국민교육분과위원으로 ‘재건국민운동 중앙위원회’ 50인에 위촉되었다.(‘재건운동 중앙위원 50명을 위촉’, 《동아일보》, 1961. 11. 12.)

50인에 위촉 및 五月同志會 부회장(회장: 박정희)을 지내는 등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시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구술증언이 있다.

그러나 정작 광복이후 범부는 자신이 계획했던 동방사상과 건국이념 등에 관한 저술들을 ‘사정이 여의치 않아’⁵⁾ 거의 남기지 못하였고, 그 작품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소개되어 그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범부의 저작으로 학계에 알려진 글은 『花郎外史』(부산: 해군정훈감실, 1954. 초판), 『風流精神』(서울: 정음사, 1986), 『범부유고』(대구: 이문출판사, 1986. 일명 『政治哲學特講』) 등 모두 세 편이다. 이 중 『화랑외사』만이 범부 생전의 유일한 출판물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글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한 花郎像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말한 것을 후학인 시인 조진흠이 받아 적어 출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⁶⁾ 다른 두 권은 그의 사후, 그를 추모하는 후학들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이러한 1차 자료의 한계⁷⁾로 이전까지 범부 사상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상 전개되지 못하였다.⁸⁾ 단지 범부의 동생인 金東里(1913-

5) 김동리, 『백씨를 말함』, 김범부, 『풍류정신』, 서울: 정음사, 1986, vi 쪽.

6) 이러한 의미에서 범부의 친동생인 소설가 김동리는 범부의 『화랑외사』를 ‘전기문학’으로 규정한 바 있다.

7) 이 외에도 범부의 사상에 관한 연구가 미미한 이유로는 해방직후 한때 정치인으로서 정계에도 발을 디뎠을 뿐만 아니라, 만년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국정운영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독재정권의 이데올로기로서 인식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변인의 구술 외에도 『조선일보』(1963.05.03)에 실린 ‘林議長과面談 - 金凡父, 金八峯氏’라는 기사제목이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8) 凡父의 사상과 관련하여 이전까지 이루어진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진교훈, 『凡父 金鼎高的 생애와 사상』, 『철학과 현실』 64호, 철학문화연구소, 2005년 봄; 정달현, 『한국 전통 사상의 현대적 구현: 凡父의 풍류도론』, 『우리시대의 정치사회사상』, 영남대출판부, 2003; 김용구, 『凡父 김정설과 동방 르네상스』, 『한국사상과 시사』, 서울: 불교춘추사, 2002; 김필곤, 『凡父의 風流精神과 茶道 思想』, 『茶心』(창간호), 1993. 봄호; 진교훈, 『동방사상의 중흥조 ‘凡父 김정설’』, 『대중불교』 제113호, 서울: 대원사, 1992. 4; 정달현, 『凡父의 國民倫理論』, 『현대와 종교』 10집, 현대종교문제연구소, 1987.

1995)(이하 동리)의 문학세계나 徐廷柱(1915-2000)(이하 미당)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범부의 사상이 개괄적으로 논의된 경우가 문학계에서 있었다.⁹⁾ 그리고 1950-60년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봄처럼 일었던 ‘전통’과 ‘민족’, ‘주체’에 관한 인식은 ‘전통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던 ‘신라정신’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는 문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계에서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근현대기 문혀 졌던 사상가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의 학계에서 유행처럼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금 이 글에서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범부라는 인물 역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발굴된 그간 잊혀졌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의 사상가이고 지식인 중의 한 명이다.

따라서 아래의 장에서는 우선 그의 사상 전반을 개괄 해 보고 그 속에서 양명학이 가지는 위치, 범부의 학문적 방법론 속에서 나타나는 양명학의 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국 양명학을 대표하는 양명학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양명학에 대한 그들과의 같고 다름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9) 범부의 사상을 김동리의 문학과 연관시켜 진행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전상기, 『소설의 현실 구성력, 그 불일치의 의미: 김범부의 ‘화랑외사’와 김동리의 ‘무녀도’를 대비하여』, 『겨레어문학』40, (겨레어문학회, 2008.06); 홍기돈, 『김동리의 소설 세계와 범부의 사상』, 『한민족문화연구』12, (한민족문화학회, 2003.06); 이회환, 『김동리와 남한 ‘국민문학’의 형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숙정, 『김동리 초기 단편소설의 인물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찬호, 『김동리 소설의 사상적 배경연구: ‘화랑의 후예’ ‘등신불’ ‘역마’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영희, 『金東里 小説의 思想的 背景 研究』, (성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철용, 『김동리 초기 문학과 문학교육』,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 외에 서정주의 미학적 기반으로서 범부 사상을 다룬 연구도 있다. 박현수, 『서정주의 미학적 기획으로서의 신라정신』, 『한국근대문학연구』7, (한국근대문학회, 2006).

II. 저작을 통해 본 범부 학문의 특징

그간 잊혀졌던 사상가인 범부의 사상을 모두 읽어낸다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일 것이다. 이는 몇 되지 않는 그의 저작을 통해 그가 말하고자했던 전부나 무엇인가를 알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수나마 남아 있는 그의 저작을 통해 그 일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여기에서는 우선 그의 대표적인 저작 세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범부의 저작은 통상적으로 『花郎外史』(부산: 해군 정훈감실, 1954. 초판), 『風流精神』(서울: 정음사, 1986), 『凡父遺稿』(대구: 이문출판사, 1986) 이 세 권을 꼽는다. 이 책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화랑외사』

위 세 권의 저작 중 『화랑외사』만이 범부의 저작 중 생전에 출간된 유일한 저작이다. 그러나 이 책은 범부 손으로 직접 쓰여진 것이 아니라 1948년 범부의 구술을 그의 제자인 시인 조진흠이 받아 적어 완성한 것이다. 또한 그의 사상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화랑’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正史’가 아닌 ‘外史’라는 이름 때문에 한낱 소설책으로 치부되어, 범부의 다른 저작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1948년에 탈고된 『화랑외사』 원고는 6년이 지난 1954년 ‘당시 전쟁 직후 국군장병의 사상 무장을 위한 교재’로 부산 해군정훈감실의 김건 정훈감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것이 『화랑외사』 초판이다. 이 후, 서울: 삼화 인쇄주식회사(1967, 재판: 1,000부 한정판), 대구: 이문사(1981, 삼판) 등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각각의 판들에는 『화랑외사』가 쓰여진 이유를 적은 ‘序’와 ‘序文’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서’와 ‘서문’에는 기술자 각각이 생각하는 『화랑외사』의 의미를 적고 있다.¹⁰⁾

10) 논문의 분량상 각각의 ‘서’의 내용은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초판에 있는 김건의 ‘서문’은 ‘국군장병의 사상 무장’이라는 출판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으며, 재판과 삼판의 ‘서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화랑외사』는 초판, 재판, 그리고 삼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대상이 ‘국군장병’에서 ‘국민일반’으로, 그 내용은 ‘상무정신 고취’에서 ‘일반국민을 위한 교양독본’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정치적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초판이 나올 당시는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때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화랑외사』가 출간된 것이라면, 그 뒤의 두 판본은 ‘군사정신 고취함양’이라는 기본적인 취지 이외에 범부가 생전에 이 책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했던 ‘국민 모두의 교양독본’으로서의 가치를 그의 후학들이 마음에 담아 출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화랑외사』 초판에서 범부 자신이 쓴 ‘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굳이 군사적 면모를 가지지 않은 백결선생을 이 책에 포함시킨 것으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2) 『범부유고』

『범부유고』(대구: 이문출판사, 1986)는 범부선생유고간행위원회의 2대 회장을 맡은 이종후가 중심이 되어 범부서거 20주기를 맞이하여 비매품으로 펴낸 책이다. 같은 내용의 책이 『정치철학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문출판사에서 상업 출판되었다.

책에 실린 원고는 1962년에 범부가 부산 동래에 칩거하며 『建國政治의 理念』이란 제목으로 집필했던 것을 범부 사후 이종후가 보관해왔던 것이다. 책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더 방대한 내용의 글을 많이 쓰려고 기획했던 것 같은데 무슨 사정으로인지 미완인 채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책의 본문은 제1부 『國民運動의 準備課題』, 제2부 『共產主義 批判』으로 되어 있다. 본문

『凡父 金鼎高的 風流思想에 대한 研究 - 멋·和·妙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53-55쪽 참조

외에 부록으로 다른 시기에 집필된 것으로 보이는 『五行說에 대하여』가 함께 실렸다.¹¹⁾

범부는 국민운동을 통해 건국기초 작업을 마련하는 것을 그 우선으로 삼고 그 뒤 공산주의의 비판이라는 제목 하에 공산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그것에 빗대어 자신의 이론을 펴고 있다. 즉, 범부는 이 글에서 공산주의, 구체적으로는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의견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전통론, 더 나아가서는 현대종교의 대안으로서의 전통적 종교론을 그 속에서 펼치고 있다. 이것은 범부가 단순히 이론적 사상가로서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서 펼쳐보고자 하는 야망을 가슴에 간직한 ‘현실적인 사상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범부 생전에 미발표된 『五行說에 대하여』에서는 우리나라의 오행설이 중국의 것과는 다른 생극의 논리라고 설명, 상극이면서도 상생이고, 상생이면서도 상극인 ‘生克의 相即의 向背의 包含原理’가 우리의 오행설논리의 특색이라 설명하고 있다. 순환적이면서, 또 서로를 향상시켜주는 이러한 상생적·생극적 논리는 오늘날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주적 차원의 상생적 네오희머니즘과 동일한 맥락에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3) 『풍류정신』

『풍류정신』은 범부 20주기에 『범부유고』와 함께 출간 되었다. 『풍류정신』은 한양대의 조홍윤이 정음사의 편집위원을 하면서 원래 범부의 전기를 쓰려고 하다가 이미 지상에 발표된 자료를 간추려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것이다. 제1부가 『화랑』이고, 제2부 『최제우론』(《한국일보》에 연재되었음), 제3부 『음양론』(동양의학대에서의 ‘동방사상강좌’ 13회분을 이종익이 노트한 것으로 그의 『동방사상논총』에 수록되어 있음), 제4부가 『취세옹 김시습』(《경향신문》에 연재되었음)으로 되어 있어 각기 다른 내용과 형식의 글로 묶여 있다.

11) 김정근, 『범부가 세상과 소통한 방식』, 16쪽. 이 글은 제1회 범부연구회 세미나, 경산대구CC, 2009.6.6) 이후 새로 보완된 글임.

이러한 점은 『풍류정신』이 범부의 대표적인 저작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논리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범부의 지인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던 범부의 글들을 모아 엮은 『凡父 金鼎高 단편선』(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9)과 『太極旗』 ‘序文’(白光河, 『太極旗 - 易理와 科學에 依한 解說 -』(서울: 동양수리연구원 출판부, 1965), 1958년 건국대 부설 동방사상연구소에서 동방사상의 핵이라고 일컬어지는 ‘역학’을 3년간 강의와 동양의약대에서 ‘동방사상강좌 음양론’ 강의의 내용을 이종익이 기록한 것으로 등사본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東方思想講座』(영남대학교 고문헌실에 소장, 출판년도 및 출판사 미상)가 있다.

그렇다면 『화랑외사』, 『풍류정신』, 『범부유고』, 그리고 최근에 발간된 『범부 김정설 단편선』까지 글 전체를 꿰뚫고 있는 범부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범부는 당시 소수의 지식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통에 대한 향수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민족은 가무를 즐기며 어떠한 경우에도 멋을 잃지 않고, 우주전체의 조화 속에서 겸허하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민족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차원적인 조화(和)의 단계를 넘어 우주적 차원의 생명과 공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妙의 바탕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한’ 민족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저작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유교적 효를 통해 발현되는 至情이 그러하며, 이 지정으로 신생국의 건국이념·국민윤리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와 더불어 화랑의 예술과 종교적, 그리고 군사적 요소의 균형감 있는 조화는 범부에 의해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멋으로까지 승화된다. 이 외에도 최제우의 계시종교와 김시습이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법적인 『주역』에 대한 비꼬움 등은 범부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몇 되지 않는 그의 저작을 통해 드러나는 범부의 사상을 종합해 볼

때 그의 학문적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종교론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사상 구축하고 있다. 이는 샤머니즘과 巫, 그리고 유·불·도 모두를 포섭, 그것을 자신의 사상 가장 바닥에 뒀으로써 우리 민족의 융합과 융섭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융합과 융섭을 넘어선 창조와 발달, 그리고 우주적 차원의 대조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염원하며 자신의 생각을 한 자 한 자 적어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분별적인 서양학문에 대항하는 氣 일원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그의 사상 전반에 드러나고 있지만 특히 『풍류정신』 중 제3부 「음양론」¹²⁾과 『東方思想講座』(영남대학교 고문헌실에 소장, 출판년도 및 출판사 미상)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이 강의에서 범부는 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동양학 연구방법론’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범부의 ‘음양론’의 핵심은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기일원론을 통한 비판이며 이러한 현대의 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동양적 사고방식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범부는 ‘이분법적 이원론 → 유물론 → 회의론 · 염세주의 · 비인간화 초래 → 자연과괴 → 서양문화 멸망’¹³⁾의 도식을 이끌어 낸다.¹⁴⁾ 그리하여

12) 『풍류정신』 중 제3부 「음양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언어와 문장 독립의 과제, 제2장 동양학 연구법, 제3장 사고의 유형문제, 제4장 동방인의 특수한 사고형, 제5장 의문검정법과 태극도설, 제6장 陰靜陽動說, 제7장 과학의 유형, 제8장 陰陽은 一氣이다, 제9장 氣論, 제10장 理氣說, 제11장 理氣論, 제12장 丹學과 仙道, 제13장 精 · 氣 · 神이다.

13) 김범부, 「음양론」, 『풍류정신』, 서울: 정음사, 1986, 113-14쪽.

14) 범부의 음양론과 기에 대한 의견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난 곳은 다음과 같다. “一陰一陽之謂道에 대하여 이미 말한 바 있지만 一陰一陽이 謂道라고 하지 않고 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원론이 아니다. 그 一陰之하고 一陽之하는 현상이 둘이 아니라 무엇 하나에 의하였다는 것이니, 그것이 곧 道다. 지금에 道라면 형이상학적인 진리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요, 道는 바로 ‘통행하는 도로’라는 뜻이다. 그것을 道理의 道로 사용한 一陰一陽之謂道는 곧 道路의 뜻으로 假借된 것이 아니다. 바로 통과한다는 뜻이다. 통과되지 않고는 一陰一陽之 할 수 없는 것이다.”(김범부, 「음양론」, 『풍류정신』, 서울: 정음사, 1986, 134쪽), “그 相盪相治는 곧

발생지인 중국에서보다 오히려 조선에서 더욱 공고해져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용성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자학이 가지는 오류를 氣論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셋째, 무분별한 외세의 유입에 의한 전통적 문화에 대한 왜곡에 대한 반성을 말한다. 범부는 『풍류정신』 중 「취세옹 김시습」에서 ‘화랑’을 극히 한정적인 범위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신라시대 최고의 자리에 있던 화랑이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그 본연의 정신과 자리를 잃고 저절로 주류 문화의 혜택이 소원한 하층 사회에 잔존하면서 급기야 조선시대에 와서는 풍각쟁이, 광대, 기생, 무당, 사당, 오입쟁이 등등 그 퇴폐한 여운과 사이비한 형태만을 남기게 됨¹⁵⁾을 드러내고 있고 보았다. 범부에 의하면 당초 무당이란 임금과 같은 위치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본연의 신앙에 근거하여 모든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거룩한 존재였다!¹⁶⁾ 그러나 자신의 이론의 중심에서 있는 고귀한 ‘화랑’이 그리고 그 어느 민족과도 비교될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정통성이 무분별한 외세문화의 유입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범부의 학문적 특징은 한마디로 일원론적 동방학적 방법론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방법론은 비록 그의 저작에서 ‘양명’, ‘양명학’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어도 그 연장선 속에서 일원론적인 방법론, 특히 범부만의 일원론적 ‘동방학적 방법론’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相合相沖의 뜻인데 만물의 생성 변화가 다 陰陽一氣의 조화임을 밝힌 것이다. 이같이 一氣는 곧 陰陽이요, 그것이 一陰之一陽之하는 것이 곧 道요, 道는 곧 神의 성격이다. 陰陽의 질료는 氣이기에 陰陽은 氣에서 찾아야 한다.”(김범부, 『음양론』, 『풍류정신』, 서울: 정음사, 1986, 137쪽)

15) 김범부, 『풍류정신』, 서울: 정음사, 1986, 88쪽.

16) 조자용, 『우리문화의 멋』, 『한국인의 삶·일·멋』, 서울: 안그라픽스, 2001, 49-50쪽 참조.

III. 범부의 양명학 이해

그렇다면 이러한 범부의 저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양명학에 대한 범부의 이해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앞서도 이야기 되었듯이 범부는 자신의 저작에서 ‘양명’, ‘양명학’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의 일원론적인 방법론과 중국에 추구하는 공존, 공생의 이념은 양명학, 혹은 육왕학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양명학과 소위 ‘범부학’¹⁷⁾의 중심 개념이 되고 있는 양지와 지정을 비교하면서 두 학문 간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한국을 대표하는 양명학자들과 범부와의 관련성 또한 대략적으로나마 개괄해보고자 한다.

1) 양명의良知와 범부의至情

‘범부학’이 내포하고 있는 양명학적 특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양명의 양지와 범부의 지정을 비교, 도표로 나타내 보면 <표 1>과 같다.

이 <표 1>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양명이 말하고자 했던 양지의 본의는 그 어느 곳보다 『陽明集』에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양지란 것은 맹자가 말하는 시비지심(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마음)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다. 시비지심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절로 아는 것, 즉 양지라고 한다. 이것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며, 나의 마음의 본체로서 저절로 영묘하고 밝게 깨닫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대개 마음이 발동하면 나의 마음의

17) 필자는 여기에서 ‘범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범부의 사상에 대한 체계적이 이론이 정립된 것도, 그렇다고 그의 사상의 윤곽이 전부 드러난 것도 아니지만 범부는 분명 그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한 시대의 탁월한 사상가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상가’의 반열까지 지금은 그를 올려놓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가 추구했던 사상과 학문은 ‘범부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양명의 양지(18)와 범부의 지정

	양지의 의미 내용과 그 심화·확장	지정의 의미 내용과 그 심화·확장
1	사람이 태어나면서 지닌 율음(是), 그림(非), 선(善), 악(惡)을 자각·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위·실천하는 능력	父母子息間의 지극한 情을 출발점으로 하는 常情之至處 즉,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常情의 간절한 곳.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추한 것을 미워하는 것, 善한 것을 좋아하고 惡한 것을 미워하는 것, 向上하는 것이 좋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싫은 것
↓		↓
2	인간과 만물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며, 상호 공감·소통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또는 그런 지혜와 양심, 덕성, 생명력)	제 빛깔(自己本色), 제 길수(自然의 妙理), 제 멋(自己趣向), 절로(天地妙合), 태이(和合) ¹⁹⁾
↓		↓
3	인간과 만물을 존재, 생성케 하는 원리	內和를 넘어선 外和를 아우르는 전통적인 ‘대조화’ 사상

18) 최재목, 『내 마음이 등불이다』, 서울: 이학사, 2003, 429쪽 <도표 10> 인용.

19) 범부는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자신만의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 대표적인 개념들로 제 빛깔(自己本色), 제 길수(自然의 妙理), 제 멋(自己趣向), 절로(天地妙合), 태이(和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모든 개념이 한 문장에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누구나 **제 빛깔(自己本色)**이 있는 법이어서 그것을 잃은 사람은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제 빛깔을 그냥 지닌 사람만이 제 길수(自然의 妙理)**를 찾게 되는 법이야. 보라, 피꼬리 소리는 아름답고 까마귀 소리는 곱지 않다지만 그것이 다 제 빛깔이거든. 노루는 뛰기를 잘 하고 솔개는 날기를 잘 하거니와 뛰는 대로 나는 대로 그것 역시 제 빛깔 제 길수야. 까마귀가 피꼬리 소리를 내는 체하거나 노루가 나는 체하거나 이것은 모두 다 제 빛깔을 잃은 것이니, 백년을 가도 천년을 가도 제 길수를 얻지 못하는 법이야. 어린 애 말하는 되지 않은 채 어른의 귀에 피이지마는 철든 사람이 이런 흥내를 내다가는 웃음거리나 되고 말 것이니, 이것이 다 제 빛깔 제 길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나 제 빛깔이라는 것은 제 멋(自己趣向)과는 다른 것이야.** 누구나 제 멋이 있어. 하지만 제 멋대로 논다고 해서 누구에 게나 맞는 것이 아니야. 아무에게나 맞는 제 멋이 있고 한 사람에게도 맞지 않는 제 멋이 있으니, 아무에게나 맞을 수 있는 제 멋은 먼저

양지는 이것을 곧 깨닫게 된다. 선·불선도 나의 마음의 양지가 저절로 이것을 알게 된다.²⁰⁾(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명의 양지는 본래부터 나에게 있는 것,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본래적으로 있는 것으로 ‘인간과 만물을 존재, 생성케 하는 원리’로 범부의 지정과 일맥상통한 점을 가진다.

범부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과업을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고 미군정치하를 막 벗어난 新生國 국민에게 이미 모든 기초를 다 갖추고 있는 既成國의 국민과는 다른 국민윤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최소한 동양적 전통관을 가진 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효’에서 그 근원을 찾아 자신의 사상을 확장시켜 나갔다. 즉, 효는 부모한테 하는 것이고, 이 경애지심을 형제에게 옮길 때는 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나라에 옮길 때는 충이 되는 것으로, 이 모두가 ‘효’ 한 자에서 출발하는 것²¹⁾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범부는 ‘전통적인 애경의 정신인 <효> → (확대) → <충>(이런 내용은 결국 <화랑정신>으로 수렴) → <국민대단결>’의 논리적·이념적 도식을 자신의 <국민윤리론>의 저변에 깔고 있었던 것이다.²²⁾ 이러한 의미에서 양명과 범부는 각

제 빛깔을 지녀서 제 길수를 얻은 그 멋이고, 한 사람에게도 맞을 수 없는 제 멋이란 제 길수를 얻지 못한 그것이야. 말하자면 제 빛깔과 절로(自然) 한데 빚어서 함뻍 피고 나면 제 작(天人妙合)에 이르는 법인데, 이 ‘제 작’이란 것은 사람의 생각이 검님의 마음에 태이는(和合) 것이요, 검님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에 태이는 것이니 말하자면 사람이 무엇이나 이루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제 작에 이르렀다는 것이야.”[김범부, 『화랑』, 『풍류정신』, (서울: 정음사, 1986), 65쪽.]

20) 『陽明集』下, 『大學問』. “良知者, 孟子所謂是非之心, 人皆有之者也, 是非之心, 不待慮得心, 不待學而能, 是故謂之良知, 是乃天命之性, 吾心之本體, 自然靈昭明覺者也, 凡意念之發, 吾心之良知, 無有不自知也, 其善歟, 惟吾心之良知自知心, 其不善歟, 亦惟吾心之良知自知之.”

21) 김범부, 『國民倫理特講』, 『풍류정신』, 대구: 이문출판사, 1986, 239쪽.

22) 우기정, 『凡父 金鼎高의 ‘國民倫理論’ 構想 속의 ‘孝’』, 『동북아문화연구』 제1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40쪽.

각 자신의 사상의 출발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과 만물을 존재, 생성케 하는 원리’와 ‘그러한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대조화’는 공존과 공생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는 모두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기일원론이라는 공통분 모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부의 노력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이론들은 박정희 정권기 후반 체제 유지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²³⁾되면서 범부 사상 전체를 국수 주의나 과시증적 성향을 띤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2) 최명길, 박은식, 정인보, 그리고 범부

위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도 범부가 추구 하던 사상의 이론적 흐름은 양명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기일원론적 사고방식이라던가, 공생을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 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서에서 그들의 사상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범부의 이러한 사상적 흐름이 ‘양명의 것’과만 일치해 보이 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 같은 학문을 한다하더라도 그 학문이 펼쳐지는 사회전반의 조류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어떠한 사상도 사회 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며 그 사상에 대해 반대이든 찬성이든 간의 의견 없이 나 홀로 그 사상을 피워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양명학자 최명길, 박은식, 정인보를 범부와 비교하여 당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양명의 것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23) 정달현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金凡父는 ‘국민윤리’라는 용어를 조어하여 ‘민족의 전통정신’, ‘민족 구성원의 전통적 에토스’라는 의미로 개념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국민윤리’라는 개념은 박정희 정권기 후반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기 이전까지 지배세력이 지배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金凡父가 본래 의 도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정달현, 『한국 전통 사상의 현대적 구현: 金凡父의 풍류도론』, 『우리시대의 정치사회사상』, 경산: 영남대출판부, 2003, 365쪽.]

또한 범부외는 어떠한 면에서 같고 다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세부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개괄적인 부분을 도식화하여 비교 분석 해 보고자 한다.

양명학적 입장에서 바라 본 최명길, 박은식, 정인보, 그리고 범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 최명길, 박은식, 정인보, 그리고 범부

	최명길	박은식	정인보	김범부
생물 연대	1586-1647	1859-1925	1893-?	1897-1966
핵심 사상	주화론	만물일체론	생명사상	기일원론적 동방학
대항 대상	주자학	주자학과 위정척사사상	주자학의 이기분별론	선진유가의 왜곡
중심 개념	양지			지정
공 통 점	만물일체론, 생명중심, 공생, 공존			
다시 읽기	네오희머니즘			

최명길은 당시의 대세인 신유학을 바탕으로 하고는 있었지만 성리학 원론이나 번다한 예절 자체에 대해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았고 명분론 일변도로 흐르지도 않았다. 또한 양명학에 호감을 보여 그 소양을 몸에 익혀 장유 등과 더불어 그 사상을 후대에 이어준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 된다. 박은식 역시 10세 이후 부친에게 한학을 배우면서 자연스레 주자학 연마에 심혈을 기울여 그 이름을 날렸으나 일찍부터 정약용의 문인들과 접촉하면서 그의 실학사상을 체득하였다. 그러던 중 1890년대 서울에 거주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 그의 사상도 종래의 정주학 중심에서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양명학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사상적 변화를 바탕으로 교육·언론가 또는 민족운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정인보는 그 시작부터 주자학의 이기분별론

에 반대하며 한민족이 주체가 되는 역사체계 수립에 노력한 역사학자이며 우리나라 양명학 연구의 가장 굵은 선을 그은 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출발이야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이 세 명의 공통점은 형식적인 주자학을 비판하고 양지를 통해 공생, 공존의 의미를 발현하고자 노력하였다는데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범부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관념 속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효를 근거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정이란 개념을 상징, 외세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전통문화의 파괴와 혼탁을 염려하는 한편 가장 숭고한 지정의 확장을 통해 내 자신 안의 조화는 물론 가족 간의 조화, 국민 간의 조화를 넘어선 우주 전체의 대조화를 말하고 있다.

범부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덮혀 있는 인다라망(因陀羅網)²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전체적인 조화를 통해서만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범부의 사상은 오늘날 생명학의 관점에서 네오휴머니즘으로 다시 읽히고 있다. 네오휴머니즘이란 새로운 것을 뜻하는 ‘네오(Neo)’와 인간 중심주의를 뜻하는 ‘휴머니즘(Humanism)’이 결합된 것으로 휴머니즘에 깔려있는 인간중심적 감정을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까지 확장, 너와 내가 별개가 아님을 인식하고, 조화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추구한다. 이러한 네오휴머니즘의 정신은 바로 범부가 이야기한 ‘지구적 차원의 조화’, 그리고 ‘우주적 생명의 멋·풍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용어라 볼 수 있다.

이 네 명은 시작은 다르지만 그 궁극은 만물일체론, 생명중심, 공생, 공존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4) 因陀羅網이란 부처가 세상 곳곳에 머물고 있음을 상징하는 말로 산스크리트로 인드라알라(indrala)라 하며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뜻이다. 고대 인도신화에 따르면 인드라 신이 사는 선견성(善見城) 위의 하늘을 덮고 있다. 일종의 무기로 그물코마다 보배 구슬이 박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들이 무수히 겹치며 신비한 세계를 만들어 낸다.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온 세상으로 퍼지는 법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화엄철학에서는 ‘因陀羅網境界門’이라고 하여 부처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머물고 있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IV. 양명학을 넘어선 범부의 동방학 이해

그러나 범부는 양명학과 비슷한 사상을 논하면서도 그의 저서 어디에서도 양명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단지 두 어 군데에서 육상산을 간단히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범부에게 있어서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 앞에서 필자는 그의 학문을 임의로 ‘범부학’이라 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범부가 사용한 개념 속에서 그의 학문을 포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흔히 동아시아에서 『東洋』²⁵⁾이라고 하면, 선박으로 서쪽의 세력과 문물이 바다로 밀려들어 온 경로인, 오늘날의 남지나해 언저리를 가리키는 말로 명 말부터 써 온 말로, 일반적으로 ‘동양’은 ‘서양’과 구분되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명칭으로 주로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및 그 주변 여러 나라’를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들만은 ‘오로지 일본을 부를 때 쓰는 말’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大東亞主義, 脫亞入歐라는 표어를 가지고 ‘미개한 중국, 한국, 인도 및 그 주변 여러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즉, 일본이 중국에 기어코 빼앗기자 한 것은 ‘동의 상징’으로서 문명국, 선진국의 의미였다고 생각된다.²⁷⁾

범부가 사용했던 용어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용어는 ‘동양’이 아닌 ‘東方’²⁸⁾이다. 그는 자신의 저작 곳곳에 ‘동방’, ‘동방인’, ‘동방학’, ‘동방

25) 이 부분은 최재복, 『‘동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떨고도 낫선 동양』, 서울·대구: 이문출판사, 2004, 14-16쪽 참조

26) 諸橋轍次, 『大漢和辭典』권6, 東京: 大修館書店, 1984, 197쪽.

27) 임형택, 『문명의식과 실학 - 한국 지성사를 읽다 -』, 서울: 돌베개, 2009, 23쪽 참조

28) 그러나 범부가 사용한 동방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양과 어떠한 차이를 그에게 더해주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범부가 사용한 동방의 개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방사상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임하고 있을 당시 강의했던 내용을 적어 놓은 이종익의 ‘동방사상강좌’ 중 ‘역학’과 ‘오행사상’을 곱씹어 읽고 그 속에서 범부가 사용한 동방의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전부일

사상, ‘동방문화’, ‘동방의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범부는 이 둘, 즉 동양과 동방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글 중간 중간 어떤 경우에는 ‘조선’만을 ‘동방’으로 가리키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중국을 비롯, 일본까지를 ‘동방’의 영역에 넣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범부가 자신의 글 속에서 ‘동방’의 개념을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때에 따라, 즉 글의 내용에 따라 그 용어의 사용환경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범부가 ‘동방’이란 단어를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음양론’과 ‘오행설과 동양의학의 이해’ 부분이다. 그 외 여러 곳에 간간히 동방이란 단어가 보이기는 하나 그것은 단편적인 단어의 기술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범부의 동방에 대한 이해를 대략적으로 도표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범부의 저작 속에 나타나는 동방

『범부 김정설 단편선』, 『오행설과 동방의학의 원리』	한족의 전유적인 문화는 아님
『풍류정신』, 『음양론』	한자문헌을 공유하는 문화권 일반. 학문적 방법론으로까지 확대
『풍류정신』, 『최제우론』	무위·자연의 성격인 대조화의 성격을 신라의 풍류정신으로 가지는 우리 민족

위의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범부의 동방에 대한 점증적인 의미의 확장, 혹은 상하좌우로 종횡하는 그의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다소간의 혼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동방’은 범부 사상 전반에 걸쳐, 그것도 무게감을 가지며 동양과는 비교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1853-1868)이전 글자 그대로 동쪽 바다를 뜻하던 동양이 메이지 유신 이후 단순히 ‘서구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범부에게 있어서도 ‘동방’은 단순한 지리적, 그리고 개념의 틀에 갇힌 동방이 아닌 것이다.

‘유연한 사고 속의 동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의 중심에 그것을 두었던 것이다.

흔히 『주역』은 동방적 지혜의 정수라 이야기되어진다. 그리고 범부 역시 역학에 기초한 음양론과 오행설을 동양의 전통론의 핵심으로 보았다. 『주역』에 대한 범부의 깊은 이해는 그와 관련된 아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²⁹⁾ 그러나 『주역』 원리를 간단히 말하기는 쉽지 않으니 이완재의 글³⁰⁾을 빌려 『주역』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주역』은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들어 진리의 표현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을 그 첫 번째 특색으로 들 수 있다.
- ② 『주역』의 우주관은 생명적 우주관이고 이 생명이 바로 우주의 본질인 것이다.
- ③ 우주는 圓融無碍한 조화체이다. 『주역』의 64괘는 우주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64괘 384효는 서로 뿔레야 뿔 수 없는 원융한 相即관계에 있다.
- ④ 인간은 천도를 순응, 천인합일 또는 合自然의 경계를 실현하려는 것이 『주역』의 이념이다.
- ⑤ 『주역』의 궁극적인 경지는 인간의 狡智로 좌지우지 되는 의도성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

29) 역학과 관련되어 회자되고 있는 범부의 이야기 중 하나는 범부가 일본의 경도 제대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이다. 당시 경도제대에서는 그 대학의 학장이 ‘주역 강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범부가 그 시간에 참석하지 않자 학장이 불러서 왜 강의시간에 들어오지 않는지를 묻자 범부는 들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학장은 범부에게 강의를 하번 해 보라고 했고 그래서 범부는 그 시간 내내 강의만 했다고 한다.[김정숙, 『김동리의 삶과 문학』, 서울: 집문당, 1996, 45쪽.]

30) 이완재, 『범부의 정신세계』, 2009年 凡父研究會 第2回 學術세미나 자료집 『新羅-慶州-花郎精神 發掘의 先覺者 凡父 金鼎高의 思想世界를 찾아서』, 凡父研究會, 2009.10. 참조

그리하여 중국에는 ‘인간의 교지(狡智)로 좌지우지 되는 의도성을 넘어서는’ 이 터져버린 세계가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계에는 사사로운 인간의 사려나 욕구는 용납될 수 없고 생생의 묘리만이 작용되는 절대의 세계이다. 아마도 범부는 이 경계를 체험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의 서술이 그렇듯 생생하고 자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체득한 이 세계를 일반인에게 이해시키고 실현시켜 보고자 애 쓴 것이 범부 필생의 업적이었다 할 것이다. 이 터진 세계 즉 만물을 포용하고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혼연한 세계 이것이 범부의 정신세계이며 범부가 말한 동방인 것이다.

V. 공생과 대조화를 통한 네오헤르니즘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양지를 근본으로 하는 양명학의 종착역은 공생의 원리이며 지정(회)을 근원으로 하는 범부학의 종착역은 공생을 넘어선 대조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명이 말하는 심이 기와 접맥됨으로써 역동적이면서도 거대한 하나의 완결된 내적 상호소통망, 연락망이 형성되 여기에서 만물을 한 몸으로 여겨 만물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사랑의 그물짜기’ = ‘만물 일체의 仁’의 논리를 보탬으로써 우주를 생명에 찬 커다란 하나의 ‘공생의 마을(村)’로 만들어 간다.³¹⁾

양명의 이러한 논리적 전개는 효에서 시작해 우주전체의 대조화를 말하는 범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범부는 1950년대에 이미 남극의 얼음을 녹여 보다 온 환경과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지식인들에게 ‘우주 전체의 조화’를 말한 바가 있다³²⁾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화는 앞에서 이미 언급된

31) 최재목, 『동생·동심·공생의 이념』,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9, 100쪽 참조

32) 이 이야기는 “제1회 범부 김정설 연구 세미나”(경산 대구CC, 2009.06.06)에서 이완재

바와 같이 인간과 인간의 조화, 물건과 물건의 조화의 단계를 넘어서 천인묘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생의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우주적 생명의 멋·풍류’로 이름 붙여 질 수 있다.

『화랑외사』 「백결선생」편에 있는 ‘꽃씨 뿌리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상생의 관계’, ‘우주적 생명의 멋·풍류’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러한 백결선생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자기 취미, 아니 취미라기보다는 생활은 첫째, 음악을 좋아하였었지만, 그러나 날씨가 좋고 할 때는 문을 닫고 앉아서 거문고를 타는 일은 그리 없었다. 가끔 그는 큼지막한 망태를 메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꽃씨를 따 모아 가지고, 꽃 없는 들판이나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뿌리곤 하였다. 선생은 이 일을 무엇보다도 오히려 음악 이상으로 재미스럽게 생각하였다. 혹시 누가 멋모르고 그것이 무슨 취미냐고 물으면 그는 “이것이 治國 平天下야.”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생에게 있어서는 꼭 농담만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수백리 길을 멀다 생각하지 않고 꽃씨를 뿌리러 다닐 때가 많았다. 그리고 백결선생이 망태를 메고 지나간 곳마다 온갖 꽃이 다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무나 꽃 없는 산, 그 중에도 별정계 벗겨진 산을 볼 때는 어떤 비뽀일을 제쳐 두고라도 근처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산을 다 집고는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러곤 사람을 벗겨두면 나랏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산을 벗겨두면 산신님이 화를 낸다고 말했다.³³⁾

‘큼지막한 망태를 둘러메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꽃씨를 따 모아가지고, 꽃 없는 들판이나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뿌리곤 하는’ 백결선생에게 이것이 무슨 취미냐고 물으면 ‘이것이 치국 평천하야.’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백결선생의 모습에서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노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를 통해 들은 것이다. 그러나 범부가 언제, 어디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추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33) 김범부, 『백결선생』, 『화랑외사』, 대구: 이문출판사, 1986(3판), 146쪽.

‘미래에 대한 기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래 꾸준히 범부를 언급한 시인 김지하는 범부를 우리나라 근대기에 이러한 조화의 원리, 즉 네오희머니즘을 사상계와 정신계에 제기한 인물로 평가³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효(화랑) → 최제우(동학) → 김범부’로 이어지는 생명학적 측면의 영남학 계보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³⁵⁾

범부의 이러한 사상은 단지 영남학적 계보에서만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면면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범부 연구에 대한 장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34) 김지하, 『디지털 생태학: 소곤소곤 김지하의 세상이야기 인생이야기 4』, 서울: 이룸, 2009, 154쪽.

35) 『嶺南學과 영남대학: 60주년 기념 인터뷰 / 김지하 석좌교수』, 《영남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호》, 영남대학교 신문방송사, 2007, 16-17쪽.

<참고문헌>

『陽明集』.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권6, 東京: 大修館書店, 1984.

① 범부 원문

金凡父, 『花郎外史』(初版), 부산: 海軍本部政訓監室, 1954.

_____, 『花郎外史』(再版), 서울: 凡父先生 遺稿刊行會, 1967.

_____, 『花郎外史』(三版), 大邱: 以文出版社, 1981.

_____, 『風流精神』(初版), 서울: 정음사, 1986.

_____, 『風流精神』(再版),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9.

_____, 『凡父遺稿(政治哲學特講)』, 大邱: 以文出版社, 1986.

_____, 『국민윤리특강』, 『화랑외사』(三版), 大邱: 以文出版社, 1981.

_____, 『동방사상강좌』, 영남대 고문헌실 소장, 이종익 기록, 출판년도·출판사 미상.

_____, 『凡父 金鼎高 단편선』, 최재목·정다운 엮음,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9.

② 단행본류

김용구, 『한국사상과 시사』, 서울: 불교춘추사, 2002.

김정숙, 『김동리의 삶과 문학』, 서울: 집문당, 1996.

김지하, 『디지털 생태학: 소곤소곤 김지하의 세상이야기 인생이야기 4』, 서울: 이룸, 2009.

임형택, 『문명식과 실학 - 한국 지성사를 읽다 -』, 서울: 돌베개, 2009.

정달현, 『우리시대의 정치사회사상』, 경산: 영남대출판부, 2003.

조자용, 『한국인의 삶·열·멋』, 서울: 안그라픽스, 2001.

최재목, 『내 마음이 등불이다』, 서울: 이학사, 2003.

_____, 『동생·동심·공생의 이념』,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9.

_____, 『멀고도 낮은 동양』, 서울·대구: 이문출판사, 2004.

범부연구회 편, 『범부 김정설 연구』, 경산: 대구 프린팅, 2009.

③ 일반논문류

김정근, 『범부가 세상과 소통한 방식』, “제1회 범부연구회 세미나”, 경산: 대구CC,

2009.06.06. 보완본.

- 김필권, 『凡父의 風流精神과 茶道 思想』, 『茶心』(창간호), 1993. 봄호.
- 박현수, 『서정주와 미학적 기획으로서의 신라정신』, 『한국근대문학연구』 7, 한국근대문학회, 2006.
- 우기정, 『凡父 金鼎高의 ‘國民倫理論’ 構想 속의 ‘孝’』, 『동북아문화연구』 제1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이완재, 『범부의 정신세계』, 2009年 凡父研究會 第2回 學術세미나 자료집, 『新羅-慶州-花郎精神 發掘의 先覺者 凡父 金鼎高의 思想世界를 찾아서』, 凡父研究會, 2009.10.
- 전상기, 『소설의 현실 구성력, 그 불일치의 의미: 김범부의 ‘화랑외사’와 김동리의 ‘무녀도’를 대비하여』, 『겨레어문학』 40, 겨레어문학회, 2008.06.
- 정달현, 『凡父의 國民倫理論』, 『현대와 종교』 10집, 현대종교문제연구소, 1987.
- 진기훈, 『동방사상의 증흥조 ‘凡父 김정설’』, 『대중불교』 제113호, 서울: 대원사, 1992.04.
- _____, 『凡父 金鼎高의 생애와 사상』, 『철학과 현실』 64호, 철학문화연구소, 2005년 봄.
- 최재목·정다운, 『『鷄林學塾』과 凡父 金鼎高(1) - ‘設立期’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16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8.09.
- 홍기돈, 『김동리의 소설 세계와 범부의 사상』, 『한민족문화연구』 12, 한민족문화학회, 2003.06.

④ 학위논문류

- 정다운, 『凡父 金鼎高의 風流思想에 대한 研究 - 멋·和·妙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희환, 『김동리와 남한 ‘국민문학’의 형성』,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영희, 『金東里 小說의 思想的 背景 研究』, 성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숙정, 『김동리 초기 단편소설의 인물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찬호, 『김동리 소설의 사상적 배경연구: ‘화랑의 후예’ ‘등신불’ ‘역마’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철웅, 『김동리 초기 문학과 문학교육』, 홍익대학교 1999.

⑤ 기타(신문류)

『嶺南學과 영남대학: 60주년 기념 인터뷰 / 김지하 석좌교수』, 《영남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호》, 영남대학교 신문방송사, 2007.

기자미상, ‘朴議長과面談 - 金凡父, 金八峯氏’, 《조선일보》, 1963.05.03.

기자미상, ‘재건운동 중앙위원 50명을 위촉’, 《동아일보》, 1961.11.12.

- 이 논문은 2010년 10월 21일 접수되고
2010년 11월 2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12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ABSTRACT>

A study of Beombu Kim Jeong Seol's Yang-Ming study

Chung, Da-un*

This thesis is to look over a digest about Beombu Kim Jeong Seol(1897-1966)'s Yang-Ming study. First, it recap the points from the Beombu's thought. Then it organize that Yang-Ming study in Beombu's thought and comparison with Yang-Ming scholar of Korea. That is features of his study that rest on traditional religion thought, opinion spirit monism(氣一元論) against the West study, ask to reconsider about distortion of traditional culture.

Beombu didn't go into details about Yang-Ming, Yang-Ming study. But his opinion spirit monism and coexistence, symbiosis idea same with Yang-Ming study. Specially these have the same that are Yang-Ming's Yang Zi(良知) and Beombu's Zi Jeong(至情). Also it try to understanding about Beombu's Yang-Ming study in comparison Choi Myung Gil(崔鳴吉), Park Un Sig(朴殷植), Jeong In Bo(鄭寅普) who are Yang-Ming scholar of Korea.

We can understand that Beombu's thought is the principles of harmony, and it is neo - humanism. Also we can say what is genealogy of Yeongnam area study the Great Master Wonhyo(the Flower Boy) → Choi Je Woo(the East study) → Beombu.

Beombu's thought have to continue in genealogy of Yeongnam area study and cosmic level. And a study of Beombu's thought will expand though these thing.

【Key Words】 Beombu, Kim Jeong Seol, Yang-Ming study, neo-humanism, harmony

* Yeungnam University.